

#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

특집 난민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간다

## 옷의 힘

# 16 난민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

표지 사진 : 나카노 마사키

2006년에 이미 4,000만 명에 육박하던 난민 수가, 10년이 지난 지금 6,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내전과 박해, 재해를 피하기 위해 모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짐보따리도 챙기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 때로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2차대전 이후 최악의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난민들의 바람은 안전한 생활을 되찾는 것. 식량, 물, 의료, 거주할 곳, 옷, 그리고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어 가족과 함께 사는 것. 이 모두가 우리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난민 문제는 더 이상 기존의 방법이나 체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난민 문제는 결코 먼 곳에서 일어나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이웃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의류 회사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객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유니클로가 실천하는 세 가지 활동- ‘함께 일하는 것’, ‘옷을 제공하는 것’, ‘알고,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난민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 난민 수는 2016년 6월 현재의 어림수



① 함께 일하는 것



② 옷을 전달하는 것



③ 알고·배우고·체험하는 것

카디자 베곰 /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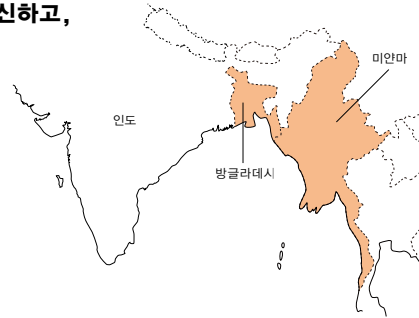
## 10년 후에는 유니클로의 일원으로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난민을 돕고 싶다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의 의사였던 아버지는 정치활동을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방글라데시로 피신하고, 어머니는 3명의 아이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카디자는 10남매 중 여섯째로 피난처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경위로 일본에 와, 난민으로 인정 받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 2006년 추운 겨울에 일본에 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품어온 꿈이 있습니다.

사진 : 나카노 마사키



저는 10남매 중 여섯째입니다. 위의 3명은 미얀마에서 태어났고, 넷째부터는 피난한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로힝야족이라는 소수민족의 이슬람교도입니다. 아버지는 미얀마의 수도에 있는 양곤대학교를 나온 의사였는데, 로힝야족 중 의사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무엇보다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며 동료들과 처음으로 데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얀마에 있을 수 없게 되어, 먼저 홀로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어머니 뱃속에는 4번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웅다우라는 마을의 대지주 딸로, 그 지역에서는 로힝야족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수립되자, 이동과 교육, 취업 등에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온 편지만을 의지 삼아, 만류하는 할아버지를 뿌리치고 거의 맨몸으로 방글라데시로 건너갔습니다. 풍요로운 생활을 버리고, 겨우 아버지와 재회했지만, 배개조차 없는 가난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한 아버지는 로힝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방글라데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소 의사로 고용되고 실력을 인정받아, 5년 후에는 큰 병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피난해 온 사람들을 지원하고,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교섭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에 발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의사 자격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

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고, 거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미얀마로 돌아간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 딸들을 같은 로힝야족과 결혼시키려고 여러 나라로 피난 간 동포들 중에서 결혼 상대를 찾아왔습니다.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미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셋째 언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 의사를 포기하고 결혼

제 남편은 미얀마 출신의 외과 전문의입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 군사정권의 의향을 거스르는 책을 써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몸을 감추고 있었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직 18살이었던 남편이 군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았습니다. 석방 후에는 위험한 고향을 떠나 양곤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졸업식 직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실로 영화나 책에 나올 법한 도피행을 거쳐 간신히 일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난민 신청을 해서 2년 반 후에 겨우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일본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후 방글라데시에 일시 귀국했을 때로, 제가 18살, 그는 28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험 신청으로 로힝야족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가족에게까지 누가 될까 봐 눈물을 머금고 수험을 포기했습니다.

그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조건은, 일본에서 반드시 공부하게 해줄 것(웃음). 2006





년 12월 31일, 처음으로 도착한 일본은 마치 냉장고 안처럼 추웠습니다. 4월에 RHQ(난민 사업 본부)가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해 백지상태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 6개월의 프로그램을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수료 후에 보는 일본어 능력 검정시험은 3급에서 2급으로 올려서 도전했고, 합격했을 때는 정말 뿔뿔이 기뻐했습니다.

일본에서 학교에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었지만, 남편 수입으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든 저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다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습니다.

RHQ 선생님께 상의했더니, 1급을 취득할 정도로 공부하면 대학교도 붙을 거라고 하시면서 신주쿠에 있는 일본어 학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험을 쳐서 70% 학비를 면제 받게 되었고, 그 후 2년간 맹렬하게 공부했습니다. 졸업 때 아오야마가쿠인대학이 UNHCR의 난민 고등 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해마다 1명씩 학비 면제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권을 산다는 심정으로 응모했는데, 기적적으로 합격했어요.

### 대학교에서 유니클로의 난민 지원을 알게 된다

대학교에서는 난민에 대해 배우려고 종합문화정책 학부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수업 중, 유니클로의 난민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니클로 팬이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어디에서든 살 수 있다는 것이 주부로서는 고맙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1학년 기말고사 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속에 있는 동안은 당신이 고생해줘, 태어나면 고생은 내가 할게.’ 2학년 여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중고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저는 열심히 대학에 다녔습니다. 3학년 기말고사 때 둘째를 가졌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는 일본의 난민 문제였습니다.

대학교 때 유니클로 이케부쿠로 히가시구치 점에서 10일간 대학생 대상 인턴십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커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고 큰 소리를 냈는데, ‘저 인턴 아가씨 활기가 대단하다. 1층에서 3층까지 다 들린다’ 며 스태프들이 얘기할 정도였습니다.(웃음)

점장, 스태프 모두 사이가 좋은 매장이었습니다. 인턴 종료 후에 정식으로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기꺼이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고, 이슬람교도라서 베일을 쓰고 있는데, 이대로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 문제 없다’ 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격했어요. 그때 장래에 유니클로의 일원이 된다면 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먼저, 한 사람의 자립을 돕고 싶다

이케부쿠로 히가시구치 점 아르바이트는 출산을 계기로 그만두었지만, 아이가 크면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 동일본 대지진으로 남편이 경영하는 할랄 푸드(halal :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말함)점의 경영 부진으로, 우리 식구는 군마현의 다테바야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했고, 군마에는 로HING족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를 당시 점장님에게 얘기했더니, 다테바야시 점에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작년 4월부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테바야시 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난민이라고 하면 옷가지도 더러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풍족하고 질 높은 인생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쳐야 합니다. 이 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는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자립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있다면, 사람은 가능성을 향해 앞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에도 플러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 꿈은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아니, 가능하면 5년 이내에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 있는 로HING족 난민을 위해, 유니클로의 일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5살, 3살 난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정규 사원이 되어,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어렵다면 개인으로써라도 뭔가 난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지원을 받아 자립하면, 그 사람 뒤로 또 누군가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남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column

## 난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

6,000만 명이 넘는 난민·피난민 문제를 함께 지향하는 미래 안에서 생각합니다.

사진 : 유엔 난민기구(8페이지 왼쪽 하단 이외)

난민은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전과 인권 침해, 민족과 종교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박해로, 집과 토지를 등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찾아 국경을 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와 벨기에에서 일어난 동시 다발 테러를 계기로, 지금까지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들였던 유럽에서 난민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 배제하자는 움직임이 일부에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난민은 또 다른 희생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 거주 시설이 필요합니다. 종교, 문화, 관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마찰도 상호간의 이해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수용하는 나라 입장에서 긴급하지만, 소화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하는 사태입니다. 이 또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 17년간 지속된 피난 생활

201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문제도 유럽뿐만 아니라 국경을 마주하는 이웃 나라까지 큰 부

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외로 탈출하지 못하고 국내 피난민으로 집을 떠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선택의 여지 없이 국경을 넘는 난민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접 국가인 터키,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에는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400만 명 남짓한 레바논이 받아들인 난민은 100만 명, 터키는 270만 명에 이르며, 현재 세계 최고의 난민 수용국이 되었습니다.

모국이 평화를 되찾게 되면 난민들은 모국으로 돌아가 내 집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국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생활의 가능성을 찾아 제삼국으로 향하기도 어려워, 그 대부분이 주변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난처에서 보내야 하는 평균 기간은 17년이라고 합니다.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고 자라 교육의 기회, 취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도 갖지 못하는 젊은이가 자립의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박탈당한 상태로는 희망을 찾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 사람을 키우고, 풍요로운 토지로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웃 나라의 지역도 결코 풍요롭지만은 않습니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에게도 난민에게 필요한 교육과 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민 수용 지역에 도로와 전기, 수도 등 인프라를 정비,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하는 직장을 만듭니다. 또 초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는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기회를 주고,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을 제공해,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난민 캠프에서 지역과 난민의 미래를 동시에 여는 지원으로의 전환.

유엔 난민기구(UNHCR)와 각국 정부, 난민 지원 조직과의 연대를 토대로 민간 기업의 참여와 교육 기관과도 연계하여, 평균 17년을 보내게 되는 땅에 인간의 존엄과 교육, 고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과 체계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안전과 발전을 주는, 그러한 새로운 지원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 의류 회사이기에 할 수 있는 것

전 세계의 난민에게 옷을 보내는 ‘1000만 벌의 도움’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참여에 힘입어 1,000만 벌 회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난민에게 ‘옷을 보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해 ‘알고, 배우다’는 것에도 이어진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의 무대 뒤를 리포트하겠습니다.

유니클로는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한 유엔 난민기구(UNHCR), NGO와 더불어 전 세계의 난민과 피난민, 재해 이재민, 임산부와 모자 등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옷을 보내왔습니다.

옷은, 방한, 방서, 위생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입고 갈 옷이 없어 교육의 기회를 잃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의 생활에서 옷이 없어 삶의 의욕을 잃는 일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 착용감이 기분을 긍정적이고 밝게 해준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장의 옷이 뜻밖의 미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1000만 벌의 도움’ 프로젝트

난민 문제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심화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난민에게 유니클로의 옷을 보낸다’는 목표를 내걸고 2015년 10월에 시작한 것이 ‘1000만 벌의 도움’ 프로젝트였습니다.

개개인의 고객으로부터 매장에서 회수하는 것은 물론, 이 활동에 찬동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이 독자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회수에 참여해 주신 점이 이번 1,000만 벌 달성의 조기 실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적도 전달하지 않고 옷 회수에 협력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객이 회수에 대해 자발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난민의 피난 생활이 어떠한지, 난민에게 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옷의 리사이클 활동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난민 문제를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에서 유니클로 임직원 16명이 직접 르완다 난민 캠프를 방문해 고객

으로부터 회수 받은 약 54만 벌의 옷을 1만 명의 난민들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번 난민캠프에는 한겨레신문 ESC팀 조혜정 팀장이 임직원과 함께 동행해 난민의 실상을 취재하였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난민과,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르완다 난민 캠프에서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것

캠프에 가기 전, 1인당 몇 벌씩 옷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니클로 직원분들이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옷을 그곳 사람들이 차례로 받아가는 장면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옷 속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고, “나는 티셔츠 말고 셔츠가 필요하다”, “밝은 색 옷은 없느냐”, “아이 옷이 너무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제 머릿속 난민은, 성별도, 나이도, 개성도, 욕구도 없는, 그냥 ‘난민’이라는 두 글자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그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바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캠프를 방문했던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신 이야기인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살고 있던 집을 떠나,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의 다름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갑자기 이곳 저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헴베 캠프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학생의 눈빛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흙으로 벽을 세우고, 조명시설도 제대로 갖춰지



사진 : 나카노 마사키



사진 : 가미오카 신스케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1000만 벌의 도움’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온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니클로 독일 사업이 현지 NGO와 협동해 난민에게 옷 기증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혹독한 추위를 날 수 있도록 방한복을 중심으로 한 약 5만 벌을 1만 명의 난민에게 보내기 위해 여섯 군데의 난민캠프를 돌았습니다. (왼쪽 상단) 일본에서는 와세다 대학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참여를 독려해, 많은 옷을 회수하고 기증해 주었으며(오른쪽 상단), 프로 골프 선수인 아담 스코트 선수 등 유니클로의 글로벌 홍보대사들도 협력하여 활동을 널리 알려 주었습니다. (오른쪽 중단) 2016년 5월에 1,000만 벌 회수를 달성한 후, 곧바로, 르완다의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약 54만 벌의 옷을 약 18만 명의 난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진(상) : 5월에 방문한 난민 캠프에서는 한국 유니클로의 본사 및 매장에서 근무하는 총 6명의 직원이 방문해,

직접 의류를 전달하면서 난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고충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하) : 한겨레신문 ESC팀 조혜정 팀장(우측)이 함께 르완다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함께 기부한 의류를 직접 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실상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 않은 어두운 교실 안에서, 파란색 교복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소녀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호기심과 수줍음을 가득 담은 채, 사진을 찍는 저를 보고 미소 짓던 그 작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라, 꿈을 이루길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일까요?

### 기자로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느낀 변화

유엔난민기구(UHCR)에 정기후원자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가입하면 파란색 후원팔찌를 주는데요, 가끔은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을 때 착용하고 집을 나서곤 합니다. 그런 날 사람들을 만나면 어쩐지 뿌듯한 기분이 드는데, 제가 좀 유치한가요? (웃음)

그동안 제가 매달 후원금을 내온 곳들은 모두 한국의 시민단체입니다. 유엔난민기구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에서 만든, 후원자 모집 광고를 봐도 그 전까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소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 이번 난민캠프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국민 및 사회에 전달하고 싶은 점

한국 사람은 모두 '잠재적 난민'입니다. 한국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휴전 국가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인은 없겠죠.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난민이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난민 문제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는 게 꼭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웃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 소비'를 하고, 세상을 바꾸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후원금이든 편지든 힘을 실어주고,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니클로 임직원과 동행하면서, 유니클로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변화

르완다 난민 캠프 체류 기간 내내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물론 전체 직원을 가운데 특히 애사심이 높고,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한 탓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웠어요. 다들 회사를 좋아하고, 자신의 일을 좋아하고, 이런 일을 하는 회사라는 데 자부심도 크시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유니클로가 '좋은 회사'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유니클로가 아닌 한 의류 브랜드의 매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세일 기간이어서 사람이 좀 많았는데, 직원들 표정이 너무 지쳐 보이더군요. 손님이 물려와서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그건 자기 일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 만드는 회사 분위기 탓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때 유니클로 직원분들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분들도 손님이 너무 많거나 일이 몰릴 땐 힘드시겠지만, 그런 표정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출장 기간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그곳 분들을 대하는 모습에도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일정 마지막 날 그룹 인터뷰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난민들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던 저로서 기사를 제대로 쓰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CSR 업무를 총괄 하시는 닛타 유키히로 그룹 집행 임원님도,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경민(영동중앙점 플로어 점장)

이번 난민 캠프 방문을 통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추억이 깃든 옷들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절실한 물품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채윤정(서울지역 수퍼바이저)

하루 아침에 난민이 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상처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미형(본사 재고컨트롤팀)

내전으로 인하여, 한 순간에 가족, 집, 직업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난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느껴져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들의 옷이 생활을 지탱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난민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박해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난민과 국내 피난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전 세계적으로 6,000 만 명이 넘었고, 이는 지금까지 세계가 경험한 적이 없는 매우 심각하고도 긴급한 사태입니다.

난민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 집을 잃은 사람, 직업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학생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놓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인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옷을 만들고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옷을 바꾸고, 상식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나간다’ 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민 문제의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여 지원해 나가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심각한 현황을 직시하고 2015년 10월 난민에게 옷을 보내는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 을 강화하여 세계 16개 나라와 지역의 모든 매장에서 유니클로의 옷을 회수하는 프로젝트 ‘1000만 벌의 도움’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전 세계의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임직원은 물론, 민간기업, 교육기관,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의류 제공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5월에 목표로 한 1,000만 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난민이 생존권마저 위태로운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삶에 희망을 품지 못하는 난민이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는 우리와 무관한 머나먼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된 지금 난민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웃입니다. 모든 지역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지혜와 지원을 모아야 합니다. 난민 문제는 분명, 우리의 문제입니다.

난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직,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전 상품 리사이클 활동’은 계속됩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유니클로 점포로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점포에서 스태프를 불러 전달해 주세요 ●유니클로에서 판매한 전 상품이 대상입니다 ●좋은 상태로 난민에게 보낼 수 있도록, 세탁 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옷 주머니 등에 들어 있었던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멍이나 얼룩으로 인해 지원 의류로 적합하지 않아도, 회수해서 연료 용으로 마지막까지 활용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전 세계의 난민을 위한 1,000만 벌의 옷이 모였습니다.  
모여진 1,000만 벌의 옷은 유니클로가 책임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입지 않는 유니클로 의류를 지속적으로 점포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uniqlo.com/kr/csr](http://uniqlo.com/kr/csr)



1000만벌의 따뜻한 도움, 대단히 감사합니다

Grandmother with grandson  
Kyrgyzstan

[www.uniqlo.com/kr/csr](http://www.uniqlo.com/kr/csr)  
[www.unhcr.or.kr](http://www.unhcr.or.kr)